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93년도 교사 단기수련회 실시

'기도하는 교사' 주제 하에 5월 17-19일

'93년도 교사 단기수련회 일정이 확정되고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5월 17-19일, 3일간 모일 교사단기수련회는 '기도하는 교사'라는 주제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14)는 주제성구, 주제찬송 259장(빛의 사자들여)을 가지고 매일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열린다.

기도하는 교사가 되자, 부모와 같은 교사가 되자,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사가 되자라는 표어를 살피볼 때 수련회를 통해 모든 교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더욱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보살피 학생과 교사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교류되는 그런 교사가 되어 교회학교의 부흥과 발전을 이룩할 뿐더러 천국일꾼을 키우는 사역에 헌신하는 교사상을 목표로 하여 이번 수련회를 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되어 첫날에는 정삼지 목사(제자교회 시무)의 '소그룹 양육과 교회성장', 둘째날에는 정일웅 목사(충신대 교수)의 '교사의 자질향상과 영성개발', 셋째날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가 있다.

또 매일 예배 후에는 교사 자신의 영성개발과 사명감을 위해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가 장봉생 목사(고등부 지도) 인도 하에 열리게 된다.

기간중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는 참석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과 학생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2차 수련회, 5월 6, 7일

'93 충현 미주선교 찬양대

교회설립 제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93 충현미주 선교찬양대 제2차 수련회가 오는 5월 6일 저녁부터 7일 새벽까지 충현기독교원에서 모인다.

일정을 다음달 말로 앞두고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팀워크를 다져가고 있는 충현미주선교 찬양대는 장기 합숙 여행과 연주를

해야하는 찬양대의 특성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다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팀워크를 절실해지게 되어 제2차 수련회를 갖게 되었다.

6일(목)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예배 및 기도회(철교/유창무 목사, 충현 기도원지도)를 하고 오후 10시 ~12시까지 팀워크 훈련을 통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대별도의 및 발표를 하는 일정표를 짜놓고 있다.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인 해외 연주여행에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은 물론 온 교우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도와야 할 것이다.

5월 8일, 충현경로잔치

소망부와 청년2부가 준비

5월 8일(토)은 소망부와 청년2부가 주관하여 교회에 어른들을 모시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로잔치를 열기로 했다. 이 경로잔치는 옛날부터 교회 청년들이 교회 어른들을 대접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해오던 전통적인 행사이다.

금년도 경로잔치는 오전 11시에 갈릴리홀에서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점심식사, 위로 및 축하 순서등으로 진행되어 오후 2시 30분에 마칠 예정이다. 모든 기획 및 순서 진행에 소망부 교회회와 청년2부가 담당한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5월 3-6일, 동원교회 부흥회 인도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5월 3일, 목회자 세미나 특강

· 5월 4일, 청지기 훈련 특강

· 5월 7일, 소망교회 여전도회 5월 월례회 설교

5월의 계시판

2일	장기당회(4월)
2일	어린이 주일
6,7일	미주선교찬양대 수련회
8일	충현경로잔치
9일	어버리 주일
10-13일	제3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17-19일	교사 단기수련회
17-20일	사찰위로 교육
23일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예배
28일	제4회 충현올림픽
30일	성령강림 주일
30일	위원장 협의회
31-3일	충현기독교원 설립 15주년

안수집사회

오늘 신입회원 환영회

안수집사회는 지난 4월 27일 집사장임을 받은 30명의 8대 안수집사를 새회원으로 맞이하며 이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5월 2일 (오늘) 오후 3시 30분 칼빈홀에서 갖기로 했다.

이로써 안수집사회는 90명으로 회원이 늘었고 이 날의 모임은 새회원 환영회와 4월 정기월례회로 모이게 되는데 기존회원 및 신입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새가정부 수련회

5월 4, 5일 기도원에서

새가정부는 5월 4, 5일 충현기독교원에서 4일 저녁 7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여호수아 24:14, 15)이란 주제로 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새가정부 지도인 최인근 목사이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제4연합교구(3,9,10,11,12,17교구),
5월 3,4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난 4월 첫주부터 시작된 '93청지기 훈련은 금주에는 5월 3(월), 4(화)일 양일간 제4연합교구와 그동안 훈련 미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각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2시간씩 강의와 친교시간, 기도시간으로 진행되는데 금주에 모일 제4연합교구는 3,9,10,11,12,17교구

이다.
교회에서는 직장에서 파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오후 6-7시 사이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예 청지기 훈련에는 제직은 물론 교사, 찬양대원, 교구 일꾼 등 모든 직분자가 필히 참석해야 한다.



좀더 수고해 주십시오

지난 4월 27일(화) 오후 7시, 본당예배 : 제27대 경로, 제8대 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예배가 교우 및 내빈들이 모인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장립식 및 취임식에는 1명의 경로, 30명의 집사, 50명의 권사가 새로 태어나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온 교우들은 '좀더 수고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본 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중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베풀어주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역경에 처해 고난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본문의 기록 목적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마 8:27)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신유의 은 사라든지 이런 것은 심지어 이방의 술사들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을 복종케 하는 기적, 다시 말하면 바람을 멈춘다든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마 14:33)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2. 제자들만 먼저 보내신 이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마 14:22). 왜 예수님은 제자들만 먼저 가게 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슨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를 왕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필요한 소요를 피하시고 좀 조용히 쉬기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만 따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불필요한 소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쉬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즉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시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이 세상에는 끝없이 파도가 치는, 즉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세상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나 주님은 제들이 고난을 당할 때 파도를 타고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파도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몸부림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파도이건 간에 주님은 오셔서 위로해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3.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로 인생이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다는 교훈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광풍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감당을 못한다 그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혼자서는 감당 못합니다. 이 폭풍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마 14:24)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 사경에 오셨다고 했습니다(마 14:

충현강단



폭풍을 잔잔케 하신 주님

(마 14:22-36)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우리들이 파도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몸부림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결코 우리는 혼자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25). 로마인들은 밤에 보초를 설 때 네 번 교대를 합니다. 밤 시간 12시간을 네 등분 하면 3시간씩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경점, 즉 일경, 이경, 삼경,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 세시부터 여섯시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루 중 만물이 트기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두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밤 사경에, 가장 어둡고 힘들 때, 가장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주십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두려워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배가 바다를 가게 될 때 때로는 물이 들어오고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공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내니”라는 말입니다. 이말은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ego eimi)’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자’라 그랬는데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바로 예수님은 신이시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

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파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사공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유령(허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허상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파도를,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지시를 따를 때는 우리

에게도 물결 위로 걸어가는데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하셨습니다(마 14:31). 여기서 의심한다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두 줄로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즉 이쪽에서도 잡아당기고 저쪽에서도 잡아당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됩니다. 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 보고 똑바로 가야 합니다. 위만 보고 가면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맙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신을 믿거나 교만하면 넘어집니다(마 14:31). 자신을 믿거나 교만하면 풍랑에 넘어집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마 14:32) 예수님이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에 예수님을 오르시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이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배 위에 예수님 오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여러분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공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친히 운전하고 계신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괴로워하며 견디지 못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도 바라봄으로써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을 다 주님 손에 맡기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술사



나는 어려서 마술을 보면서 하도 신기해서 ‘나도 저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한 적이 있다. 얼마 전 세계 제일의 마술사인 미국의 카퍼필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신기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마술이 사실이라면 휴전선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마술은 결국 속임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마술사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마술사이다. 평소에는 그렇게 아까던 것도 사랑하면 기쁨으로 그냥준다.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주고 생명도 준다. 여자들이 생명처럼 아까던 처녀의 순결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아낌 없이 준다. 어머니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기도 한다. 바로 사랑이라는 마술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만 있으면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도 사랑이란 마술사만 있으면 된다. 우리 모두 사랑의 마술사가 되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사랑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글 신성종 목사

♥ 5월 5일 어린이 날에 ♥

언제나, 우리는 뛰어 오르는 너의 모습에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살룸에게!

살룸아! 네가 벌써 아홉살, 국민학교 2학년이 되었구나!. 네가 태어나던 날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었다. 네가 태어나던 날 너의 본래의 모습은 너무나 착했고, 이웃에게 큰 웃음을 주며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태어났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너는 우리의 자랑이며 사랑스런 아들이란다.

살룸아! 이제 너는 살아가면서 다른 누구를 질투할 필요가 없고, 모방할 필요도, 동경할 필요도 없단다. 그 이유는 너를 너답게 만드신 분은 네가 가야할 길, 너의 살아야할 모습을 작정하시고, 이미 너의 인생 속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내 아들 살룸아!

아빠가 하고픈 말은 학교시절에 열심히 놀고, 시간이 나면 열심히 공부도 한번 해보아라. 학생시절이 우등생이 된다면 부모님도 선생님도 좋겠지만, 너 자신이 아마 더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것은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더라도 역시 너는 나의 자랑스런 아들이란다. 너는 우리 네 식구의, 우리 가정의 사분의 일의 주인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 네가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한 위로와 기대감이 있단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대견스럽고 내일은 더욱 훌륭한 아들로 용감하고 멋진 아들, 그리고 책임감이 두터운 아들, 약한 자들을 만나면 보호해 주는 그런 아들로 자라갈 것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살룸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법칙을 주셨단다. 기쁨을 주면 기쁨을 받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을 만족하게 해 주면 자기 자신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불변의 사실을 말이다.

열심히 자라 가라. 힘차게 뛰어 보기도 해라. 언제나 우리는 너의 뛰어 오르는 모습에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관망만은 아니란다. 피곤에 지치면 우리가 친구로서 너의 곁에 있을 것이며, 유능한 인생훈련의 훈련관으로서 너의 곁에 서서 내가 필요로 할때면, 힘 단는데 까지 밀어주며 너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

살룸이가 주인된 어린이 날에 아빠가

이 글은 임성현 목사(전도위원회, 사랑부 지도)가 어린이 날을 맞아 그의 아들에게 쓴 글이다.

우리 할머니의 신앙

김 유 선
(초등3부)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니십니다. 모든 우리 친척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저희 할머니 연세는 64세 이십니다. 아주 오래 사실 분입니다. 몸도 아주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서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나라 남북통일을 위해, 많은 장애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침을 놓으시며 전도를 하고 다니십니다. 할머니는 기도도 아주 잘하시고, 찬송도 잘 부르십니다. 그리고 밥도 반찬도 맛있게 만드십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할머니의 따뜻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주로 야채를 좋아하십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에 잘 오십니다. 전화도 자주 하십니다.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때로는 좋은 일, 잘한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해주십니다. 나는 크면 우리 할머니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꼭 천국에 가실줄 믿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믿음에 대한 것을 주로 얘기하여 주십니다. 난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셔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저는 어디가서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꼭 할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되어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봄빛으로 오시는 예수

김 윤 섭
(집사, 제15교구)

얼음장 밑으로 봄은 합창하고
오케스트라의 지휘는 봄을 부른다
땅속 갇혔던 생명 땅에서 났기에
땅의 태줄을 그리워 한다.
태고의 아픔 씨앗 오염돼 돌고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의 참 씨앗
이 천년 생명 끝없이 영근 향기
봄빛 새겨 새천지 밝히시옵소서

움추렸던 투명한 겨울 나래퍼는 우주
시온의 21세기 새 빛으로 열리고
강렬한 빛 무덤 열고 살아나신 예수
십자가의 아픔 가슴에 심으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봄빛 모아 주님 찾아 오시옵소서

저 험한 갈보리 언덕 다다르면
지금까지 들어오는 이 천년의 신음
갈등의 심령 갈보리를 그리며
예수 앞에 무릎꿇게 하소서
말씀에 취한 미치광이 되어
사람 낚는 그물되게 하소서
흩어진 사람사람 십자가 앞에 모으시고
부활의 봄 하늘 빛으로 채우시옵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 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검손이 낮아지고 작아짐이
그리스도를 본 받게 하소서
소금과 빛되신 그리스도
십자가 형틀 풀리던 날
우리들을 품에 품고 계시는 성령
봄빛 베푸시는 긍휼로 오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큰 깨달음 주신 사랑의 주
우리들은 광야에 핀 당신의 꽃
세상에 날리는 전도의 향기
저 외치는 나팔소리
소동같은 세상 뛰어들어
죽어가는 한 생명 인도하면
벌리신 팔로 품으시는 위로의 주님
갈보리의 봄빛으로 오소서 오시옵소서

토막소식

- ◆ 아멘찬양대(대장 최상규 장로)는 5월 5일(수) 수락산으로 대원 모두가 등산을 가서 싱그러움을 덧입고 서로간의 친교와 친목을 더욱 견고하게 할 예정이다.
-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에서는 1,2부로 나누어 드리는 예배에 2부에는 혼잡하기에 1부(오전 9시)예배에 많이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5월 5일에는 유치부와 합동으로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반별친교회를 갖기로 했다. 11시까지 각 반별로 시민의 숲 주차장 광장에 집결하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이 행사를 취소할 예정이다.
-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반별친교회로 모인다. 11시까지 각 반별로 시민의 숲 주차장 광장에 집결하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이 행사를 취소할 예정이다.
- ◆ 초등2부(부장 김종구 장로, 지도 정갑신 전도사)는 성경암송대회에 39명이 참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잘 암송하여 만점을 얻은 이보형, 박준규, 이주영 어린이에게 믿음상을 주었다.
- ◆ 초등4부(부장 윤평일 장로, 지도 장상기

- 강도사)는 오늘 전 교사가 1부 예배를 드리고 초등4부 예배 후 충현기도원에 가서 기도회를 갖고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 ◆ 초등5부(부장 윤성철 장로, 지도 성봉환 목사)는 5월 2일(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어린이 헌신예배를 드린다.
-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 지도 한용관 목사)는 지난주일 금년도에 새로 초등6부에 나온 어린이들과 안드레 전도운동으로 새로 나온 어린이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 ◆ 중등1부(부장 최무길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는 지난 주일 1학기 학습평가를 실시했다. 단답형과 주관식으로 출제되었다.
- ◆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는 4월 18일 성경퀴즈대회를 한 결과 1등에 김선, 2등에 양인석, 민경내, 3등에 김기종이 입상했다. 또한 5월 9일 아버지 주일에 부모님에게 달아줄 꽃을 만드는 일을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3월과 4월에 새로나온 회원들의 환영회를 오늘 11시 분당 4층 신입부실에서 갖는다. 또한 지난 4월 한달동안 계속되었던 제1차 미래지도자 운동이 100여명의 결신자의 열매를 맺고 종료되었다. 6월에 시작되는 제2차 미래지도자 운동은 '나눔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할 것이다.

- ◆ 대학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5월 4,5일 충현기도원에서 '작은 수양회'로 모여 은혜의 시간, 팀별, 학년별, 전체 공동체 시간 등을 통해 서로 간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윤삼중 강도사)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예수사랑 청년잔치를 개최했다. 1부 예배에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고, 2부에서는 베드로의 일생에 대한 성경을 한 후 새로운 사람들과 교사들이 일대일로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장우천 강도사)는 5월 5일 북한산으로 전 회원 등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회원간의 친밀한 교제가 절실해져서 이번에 등반대회를 통해 서로를 잘 아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또한 5월 8일 경로회가 청년2부가 준비하게 됨에 따라 그 준비에 여념이 없다.
- ◆ 대학부, 청년1,2,3부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지하 2층 메추라기홀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로 대학·청년 연합 기도회를 갖는다. 매달 첫주 저녁 찬양예배 후에 모이는 이 기도회의 5월 주관은 청년2부이다.
- ◆ 새가정부(부장 김재균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으며 5월 4,5일에 새가정부 수련회를 갖는다.

- ◆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윤 목사)는 5월 16일 초청전도주일로 정하고 전도할 친구들을 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 ◆ 사랑부(부장 송환창 장로, 지도 임성환 목사)에서는 운전으로 봉사 할 교사를 원하고 있다. 사랑부 차량봉사 교사는 아침시간에 사랑부 학생들을 태우고 와서 끝난후 데려다 주는 일까지 해야하기에 교회 내의 다른 봉사와 심지어는 예배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사랑부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차량운전으로 봉사 할 수 있는 교사를 구하고 있다. 여건이 맞는 사람은 사랑부 교사실(교육관 109호)이나 사랑부 교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 ◆ 탁아부(부장 강모용 장로, 지도 최희해 전도사)는 5월 9일 각부별로 모범야기 선발대회를 갖는다.
- ◆ 충현살림경로대학(부장 김경철 장로, 지도 김용기 목사)는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생회장에 박관영 장로, 부회장에 이효성 집사, 안운진 권사, 총무에 박인숙 권사를 선출했다.
- ◆ 제2연합교구(2,5,6,18,20,23교구)가 오늘(5월 2일) 오후 2시 20분에 교육관 307호실에서 함께 구역공부를 하고 제4회 충현올림픽 출전 계획을 수립한다.

선교지 탐방기 - 홍콩편(4)

벤츠와 저지

홍콩 공항을 막 빠져 나가면서 아주 멋진 벤츠 승용차를 보았다.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대통령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 보았을만큼 크고 멋진 승용차를 실지로 보는 기분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대단한 부자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까지 가는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서 그런 차를 여러대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렇게 좋은 차가 많은 것을 보니 참으로 부유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 꼭에 있는 개인 별장들은 호화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감시원들이 그 집을 감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부유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성경에 이르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과연 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알고 지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놀라움은 그들의 부유함에 있지 않았다. 새벽에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이 없어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밤이 되면 아무 곳에서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잔다고 한다. 벤츠를 쉽게 볼 수 있었듯이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런 극심한 차이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 나라는 그런 차이는 없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나라가 속히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신앙으로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먼저된 우리들이 우리만 신앙으로 살겠다고 우리 중심으로 산다면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 35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 12억이나 되는 인구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과 그곳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홍콩의 영혼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또 한번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우리만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벤츠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게을러서 영적으로 굶주린 거지도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위원회 제공)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사역 위에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 소서
- 김창인 목사님 : 5월 3일(월)-6일(목) 동원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중 목사님 : 5월 3일(월) 목회자세미나 특강, 5월4일(화)정지기 훈련 특강, 5월7일(금)소망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설교
2. 온 백성들이 불의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소서
3.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4.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5.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소서

1953·교회설립 제 40주년·1993

교회설립 제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2회씩 연습실시(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예배 후)
- 일정 : 6월 25일 ~ 7월 6일
- 제 2차 수련회를 5월 6,7일 충현기도원에서



- 4월 4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짐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명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 4월 11일 피켓 걸 심사 선발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4월 4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처장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조직 확정.
- 각 교회학교 암송대회를 대비 해서 자체내의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등 실시

- 유 정 명 자매 (제 1교구, 청년 2부)
- 4월 11일 전교인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 실시
- 매주일 오후 4시선교관 305호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로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
- 각 연합교구들은 모임을 갖고 올림픽 출전계획과 가장행렬 계획들을 수립

3. 제4회 충현올림픽

- 4월 4일 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여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손신애·고등부 회원)

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일정을 9월 2,3일로 잡고 기본일정표 작성, 준비작업에 들어감